

## 문상필 16.6%·신수정 14.5% 김동찬 9.4% 오차범위 맹추격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북구청장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혼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아를간 만 18세 이상 북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구청장 선거 다자대결 지지도에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6.6%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14.5%로 뒤를 이었고,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9.4%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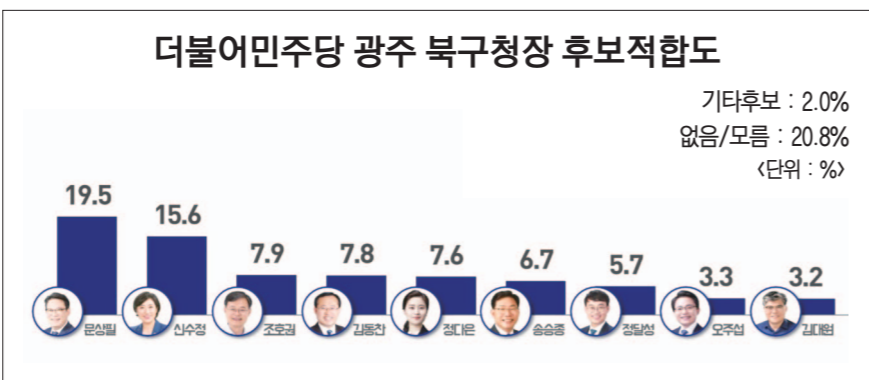
이여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8.2%), 송승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7.1%), 김순옥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 (6.1%), 정다은 광주시의원 (5.2%),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 (4.4%), 김주현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3.3%), 김대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2.9%), 오주섭 전 광주은행산업 이사장 (1.4%) 순이었다.

특히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격차는 2.1%로, 오차범위 (±4.4%p) 내에서 있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운 접전 구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 북구청장 선거 다자대결 지지도는 남성의 경우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지지도가 16.3%로 가장 앞섰다. 이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15.3%), 김순옥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 (8.9%)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16.9%),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13.8%),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11.4%),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8.5%), 송승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6.7%) 순이었다.

연령별로 봤을 때에도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8세 이상과 20대, 30대를 제외한 전 구간에 가장 높은 지지도



조호권 8.2%·송승중 7.1%…선거구별 지지 엇갈려

민주 후보 적합도 양상도 비슷…문인 3선 도전 변수

연었다. 18세 이상 20대에서는 김순옥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이 17.8%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19.5%를 기록하며 가장 앞섰다.

지역별로는 갑선거구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19.5%로 가장 높았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16.1%),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8.3%),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7.8%) 가 뒤를 이었다.

을선거구에서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6.1%로 선두를 달렸고,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6%로 동률을 이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된 구도라기보다 상위권 후보들 사이의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수는 문인 현 북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고심했던 문 구청장이었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 속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을 철회하고, 광주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 3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적합도 조사도 다자대결과 비슷한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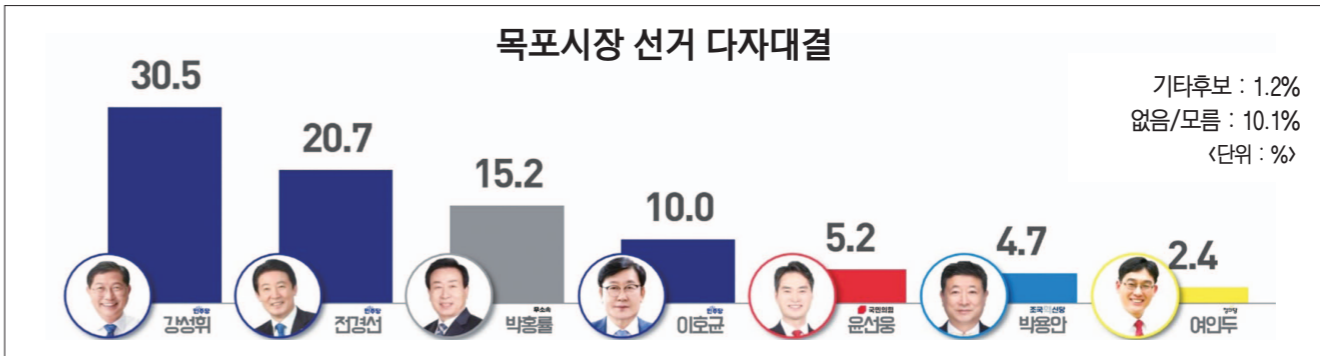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9.5%로 가장 앞선 가운데 신수정 현 광주시의회 의장이 15.6%를 기록하며 추격하는 모양새다. 이어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7.9%),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7.8%), 정다은 광주시의원 (7.6%), 송승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6.7%),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 (5.7%), 오주섭 전 광주은행산업 이사장 (3.3%), 김대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2%)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40대 (17.4%), 60대 (33.4%), 70대 이상 (34.1%)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18세 이상 20대, 30대, 50대에서 가장 지지가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2.1%),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18.9%), 조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10.2%),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8.8%), 정다은 광주시의원 (6.9%), 송승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6.8%),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 (5.2%)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강성희 30.5% ‘유리한 고지’ 전경선·박홍률 각축전 치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목포시장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크게 앞서며, 선거일을 넉달여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강성희 부의장이 30.5%로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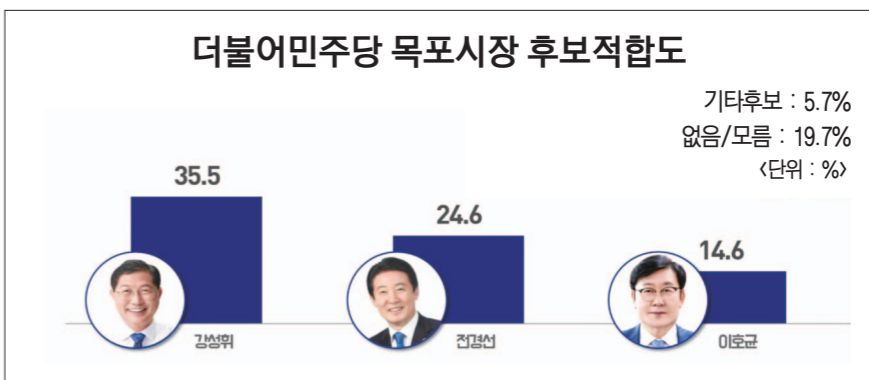
이어 전경선 전남도의회원이 20.7%로 선두와 9.8%p 차로 추격하고 있으며,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15.2%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10.0%, 윤선웅 국민의힘 목포시장 당협위원장 5.2%, 박용만 조국혁신당 목포시 지역위원장 4.7%, 여인두 정의당 목포시 지역위원장 2.4%, 기타 1.2%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 할 수 있는 ‘없음/모름’이 10.1%에 달해, 다음달 예비후보 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는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령별 지지도도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강성희 부의장이 선두를 달랐다. 60대에서 41.0%로 가장 높았고, 18세 이상 20대 22.7%, 30대 22.8%, 50대 36.2%, 70대 이상 34.7%를 기록했다. 40대에서는 28.6%를 기록한 전경선 도의원이 1위를 기록했고, 강 부의장은 20.3%에 머물렀다.

성별 지지도는 남성이 31.7%, 여성 29.4%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 부의장을 더 지지했다. 전경선 도의원은 남성 19.5%, 여성 21.9%를 기록했고, 박홍률 전 시장은 남성 17.6%, 여성 1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권역 27.6%, 2권역 32.7%, 3권역 30.9%로 모든 지역에서 강 부의장이 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 지지도에서는 강 부의장이 민주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지지층 중



강성희, 세대·계층·권역별 고른 지지로 격차 벌려

이호균 10%… 지지후보 없는 부동층 10.1% 변수

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강 부의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35.6%를 기록했고, 국민 의힘 지지층 12.2%, 조국혁신당 지지층 18.3%, 진보당 지지층 39.8%, 개혁신당 지지층 42.3%, 기타 정당 지지층 10.0%를 각각 기록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민주당 26.6%, 국민 의힘 10.1%, 조국혁신당 0.0%, 진보당 30.3%, 개혁신당 0.0%, 기타 정당 8.5%의 지지도를 얻었고, 박홍률 전 시장은 민주당 13.1%, 국민의힘 19.4%, 조국혁신당 23.6%, 진보당 9.8%, 개혁신당 8.5%, 기타 정당 38.5%로 조사됐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성희 부의장은 민주당 후보적합도에서 더욱 격차를 벌렸다. 민주당 후보적합도에서 강 부의장은 35.5%를 기록해 24.6%로 2위에 오른 전경선 도의원에겐 오차범위를 벗어난 10.9%p 격차로 앞섰다. 이어 이호균 총장은 14.6%로 2~3위 격차는 10.8%p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타 5.7%를 기록했고, 다자대결과 마찬가지로 없음/모름이 19.7%로 부동층이 많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후보적합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강 부의장이 높게 나온 가운데, 50대 (42.9%)와 60대 (42.5%)에서 강 부의장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고, 30대 (36.7%)와 70대 이상

(35.9%)에서는 30%를 넘겼다. 18세 이상과 20대,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21.8%와 29.5%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 후보적합도에서는 2권역 (36.7%)과 3권역 (38.8%)로 강 부의장이 1위를 기록한 반면, 1권역에서는 전경선 도의원이 29.8%로 강 부의장 (26.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녀 모두 30% 이상인 35.6%와 35.3%의 강 부의장이 전경선 도의원과 이호균 총장에게 큰 격차로 앞섰다.

민주당 후보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강성희 39.0%, 전경선 30.0%, 이호균 14.2% 순으로, 1~2위 격차가 9.0%p로 다소 좁혀진 반면, 2~3위 격차는 15.8%p로 더 벌어졌다. 기타는 4.5%, 없음/모름은 12.3%를 기록했다.

대부분 지지층에서 민주당 후보적합도도 강성희 부의장이 우위를 보인 가운데, 성별은 남성 35.6%, 여성 35.3%를 각각 기록했고, 연령별로는 30대 36.7%, 50대 42.9%, 60대 42.5%, 70대 이상 35.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2권역 36.7%, 3권역 38.8%로 3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고, 1권역만 20%대인 26.5%로 나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목포=이호균 기자 leek2123@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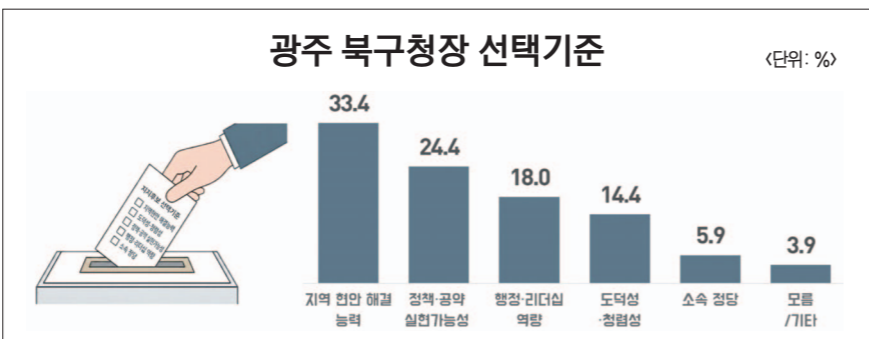
## 북구민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최우선

33.4%…정책·공약 실현도 중요  
행정 역량·도덕성도 판단 기준

광주 북구 유권자들은 차기 구청장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북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구청장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 33.4%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 (24.4%), 행정·리더십 역량 (18.0%), 도덕성·청렴성 (14.4%) 순이었다. 소속 정당을 지지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은 유권자는 5.9%, 모름 또는 기타 응답은 3.9%였다.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후보자의 잣대로 삼겠다고 답했다. 30대에서는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점 있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지역 현안 해결 능력 (31.9%)을 1순위로 꼽았다.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 (24.9%), 행정·리더십 역량 (18.0%), 도덕성·청렴성 (16.1%), 소속 정당 (6.3%) 순이었다. 여성 응답자도 지역 현안 해결 능력

(34.9%) 가장 우선으로 봤다.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 (23.8%), 행정·리더십 역량 (18.1%), 도덕성·청렴성 (12.8%) 순으로 남성과 같은 양상이었다.

지역별로도 갑·을 선거구 모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우선시 했다. 이번 조사는 차기 구청에 대해 유권자들이 이미지나 진영보다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능력과 행정력, 추진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산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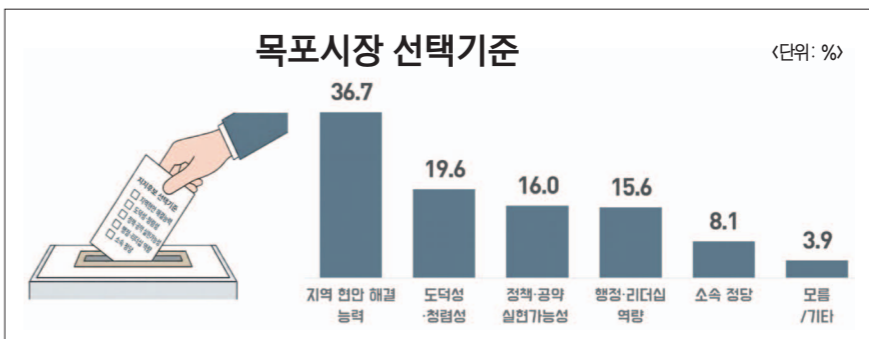
## 목포시민 36.7% “현안 해결 능력 가장 중요”

도덕성·청렴성 19.6% 2위  
정책·공약 실천 등도 필요

6·3 지방선거에서 차기 목포시장을 선출할 목포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우선시 했고, 도덕성과 청렴성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봤다.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목포시장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에 대해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덕성·청렴성이 19.6%로 뒤를 이었고, 정책·공약 실현가능성 16.0%, 행정·리더십 역량 15.6%, 소속 정당 8.1%,



모름/기타 3.9% 순으로 나왔다.

연령별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높게 선택했다. 40대는 52.1%로 절반 이상이 차기 목포시장 선택 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보겠다고 했다. 이어 30대 45.3%, 70대 이상 36.7%, 50대 32.6%, 18세 이상과 20대 30.0%를 기록했고, 60대는 26.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택기준 중 소속 정당이 가장 낮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서도 50대가 선택기준으로 3.9%만 소속 정당이라고 응답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후보 선택기준으로 소속 정당이라고 답한 연령층 중 18세 이상과 20대가 14.3%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